

종교의 디지털 전환과 윤리적 기준에 관한 논의*

김승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거룩한 기술? 세속적인 기술?

- A.I. 로봇 제사장(robot priest)은 가능할까?
- 신과 같은 알고리즘
- 디지털 샤머니즘(digital shamanism)

III. 종교의 디지털 기술 수용 단계와 필요한 논의들

IV. 디지털 종교의 윤리적 특성들

- 경험적 진정성(종교성)
- 디지털 종교의 공공성
- 인격성과 포용성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05>

* 이 연구는 202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아 수행된 것이며 과제번호는 2023S1A5B5 A16075579이다.

• ABSTRACT •

A discussion on the digital turn of religion and ethical standards

Lecturer, Kim, Seung Hw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In a digital society, religion is increasingly adapting to the digital environment. Many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ity, hold online services and deliver sermons and religious education via the internet. In recent years, AI clergy connec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ppeared, providing religious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algorithms. Younger generations increasingly recognise the online space as a religious space, a spiritual world, and seek transcendental experiences through mediator such as digital shamans.

This paper will examine some examples of the digital turn of religion in the digital society and propose a process through which traditional religion (offline religion) can be digitised as Heidi Campbell's RSST (Religious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religion clothed in digital technology, I will propose experiential authenticity, publicness, personhood, and inclusivity as ethical qualities that digital religion should possess. This will spark a relevant debate as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digitisation of religion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but a lack of adequate ethical reflection and critique.

Key words: Digital Turn, Digital Religion, Digital Shamanism, Heidi Campbell, A.I. Preist

I. 들어가는 말

현대 세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현대인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 못지않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업무를 포함한 일상의 영역들을 디지털 공간과 기기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로 매개되는(mediated) 종교의 예전과 신앙의 행위는 종교의 참여 방식뿐 아니라 종교(성)에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종교의 거룩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일상의 신앙 행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적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한다.¹⁾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예배당이나 성당, 사원을 찾는 대신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거나 설교와 찬양을 듣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 오늘날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인 공간은 바로 가상현실 세계이며, 가상현실 공간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 종교성(거룩성, 초월성, 편재성, 공동체성)과 결합하여 디지털 종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디지털 종교 연구 분야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하이디 캠벨(Heidi A. Campbell)은 “디지털 종교란 디지털 미디어와 최신 기술들에 종교 집단과 개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²⁾이라고 정의한다. 즉 기존의 종교와 종교성이 디지털의 옷을 입으면서 참여 방식과 소통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유형의 종교 형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로 확장하는 종교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의 과

1) 김승환, “디지털 신학(Digital Theology)의 출현과 연구 과제들,” 성석환 편, 『오늘의 기독교윤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3), 185.

2) Heidi A. Campbell, Wendí Bellar, *Digital Religion*, (London: Routledge, 2023), 1.

정에서 갖추어야 할 종교의 윤리적 기준을 제안한다. 먼저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종교적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I 로봇 제사장’과 ‘신과 같은 알고리즘’, ‘디지털 샤머니즘’을 통해 (디지털)기술 제기하는 종교의 윤리적 특징과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하이다 캠벨이 제안한 ‘기술의 종교-사회적 형성’(RSST: Religious-social shaping of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종교의 수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다. 무분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보다 종교적 가치와 신념, 전통과 공동체성을 고려한 종교의 접근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리고 디지털 종교가 갖추어야 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거룩한 기술? 세속적인 기술?

1. A.I. 로봇 제사장(robot priest)은 가능할까?

종교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 중 가장 극적인 사례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 제사장의 등장일 것이다. 산업계에서 활용하던 기계 로봇은 인간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한 ‘사회적 로봇’(social robots)으로 확장되었고, 사회적 로봇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단순한 매개 도구의 기능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agent)로서 의미 있는 메시지와 상호소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회적 로봇은 대화의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의미를 발생시키는 적극적인 소통자가 되고 있다. 사회적 로봇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A.I.로 무장한 ‘종교 로봇’(Religious Robot)은 상대와의 소통의 상황에서 신앙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전달하는데 탁월한 면을 보일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종교 교육을 넘어서 사용자의 영적인 교감까지 분별하며 소통하기 시작

했다.³⁾ 이를 잘 보여준 사례는 2017년 독일에서 등장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는 로봇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로봇 제사장으로 불리는 'BlessU-2'는 로봇의 몸에 부착된 터치 스크린에서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전통적인 축복 기도, 용기와 회심을 위한 축복 기도, 교제를 위한 축복 기도가 흘러나온다. 심지어 성직자의 성별도 목소리에 따라 선택이 가능했고,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로봇 제사장은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손바닥을 폈으며 기도가 끝나면 기념으로 축복 기도문을 출력해서 전달한다.⁴⁾

A.I 로봇의 축복 기도가 불편한 것은 생명이 없는 기계를 통해 신성한(거룩한)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종교의 목회직(사제직)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가에 대한 부분이다. 가톨릭 전통은 성상을 향해 기도하거나 축복을 구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개신교는 우상숭배를 이유로 성상 숭배를 거부해오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의 매개체로서 로봇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기독교에서 제작한 로봇 형태의 성상은 8세기경, 시계장인, 기술자, 장난감 생산자 등이 모여 금으로 완성된 '숭고한 인형'(sublime toys)이 처음 제작되었고, 이것은 말하기, 노래하기, 쓰기와 심지어 체스를 둘 수 있도록까지 고안되었다. 그 후 12세기에는 기계화된 인간 형상이 등장하면서 아방가르드(avant garde) 예술가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지만, 로봇이 인간의 일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어원적으로 보면 *robot*이란 단어는 체코어로 *robot*에서 왔는데 노동과 일을 의미하며 더욱 완벽한 인간에 관한 비전과 상상력을

3) Andrea L. Guzman, Seth C. Lewi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 Human-Machine Communication research agenda," *new media & society*, 22(2020), 70-81.

4) Scott Midson, "Posthuman Priests: Exploring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in Robotic Re-presentations of Religious Rituals," *Religions*, 12(2022), 940-941.

바탕으로 한다. 로봇 제작이 진행되면서 보다 정교한 기술의 발전과 종교적인 목적에 덧입혀져 종교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⁵⁾

오늘날 로봇과 가장 인간과 유사하게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교 로봇은 16세기경, 스페인 시계 공예사 후안넬로 투리아노(Juanelo Turriano)가 고안한 ‘기계 수도사’(mechanical monk)인데 지금도 작동한다. ‘기계 수도사’는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좌우로 몸을 회전하거나 바퀴를 달아 자유롭게 이동하고, 손을 올리고 입을 벌리는 행동까지 보인다.⁶⁾ 이 장치는 BlessU-2에서 기대하는 인간다움(anthropomorphic)보다는 살아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여러 기계 장치들을 부착했으며 인간과 같은 ‘생생함’(lifelikeness)을 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계 수도사’는 기계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것을 연결시켜 당시 금욕적인 영성 생활을 수행하는 수도자의 삶을 잘 보여준다.⁷⁾

오늘날은 A.I.로 무장한 종교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대가 운영 중이다. 앞서 소개한 독일의 BlessU-2는 교회에 온 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며, 로봇 산토(SanTO) 신부는 기독교-가톨릭의 성인(saint)의 유형으로 개발되어 축복 기도 중에 성경을 인용하여 기도하기도 한다. 가톨릭의 천사를 닮은 Celeste는 신도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줄 뿐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지도한다. 일본의 로봇 민다르(Mindar) 승려는 불경의 내용을 전파하며, 중국의 Xi'aner는 사원의 방문자들에게 불교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고 불교 음악을 들려준다. 또한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Pepper는 값싼 비용으로 불교식 장례식을 집전하기도 한다.⁸⁾ 기독교와 같이 유일신 사상이 강한 종교에

5) Christopher B. Swift, "Robot Saints," *Animating Medieval Art*, 4(2015), 56.

6) Lauren Davis, (2012, 11. 3) "This 450-year-old clockwork monk is fully operational," *GIZMODO*, (최종 접속 2024년 10월 8일).

7) Scott Midson, "Posthuman Priests," 951.

서는 로봇 제사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힌두교나 불교처럼 다신관을 가진 종교에서는 로봇 형태의 종교적 매개자의 활용을 긍정할 뿐 아니라 거룩한 기능과 종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이다.

물론 지금까지 등장한 A.I. 종교 로봇의 활용은 초기 단계이지만 제기 되는 몇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다. 안나 푸지오(Anna Puzio)는 이 지점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종교 로봇이 종교적 영성, 초월성을 담당하는 성직자(매개자)의 기능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둘째는 종교적 가르침과 지도에서 성직자로서 책임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각각의 교파와 종교 단체마다 상이한 관점들과 전통들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합의도 중요하다.⁹⁾ 또한 종교의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인간은 단순한 참여자나 콘텐츠의 생산자로 환원될 수 있으며, 기계적 관계 맺기와 수행으로 탈인간화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각 전통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종교적 가치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검증이 어렵기에 종교 로봇의 행위는 반복된 기계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 반대로 공동체 형성과 목회적 돌봄과 같이 종교 로봇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은 고급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BlessU-2 제작자는 로봇 제사장의등장이 인간 성직자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종교 활동에서 기계적인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¹⁰⁾ 역사상 종교는 기술 매개체(자)를 통하여 종교적 가치와 행위를 구현해왔기에 종교 로봇도 하나의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로봇 A.I.가 대체

8) Anna Puzio, "Robot, let us pray! Can and should robots have religious functions? An ethical exploration of religious robots," *AI & SOCIETY*, (2023), 12.

9) 위의 책, 10-12.

10) Scott Midson, "Posthuman Priests," 951-953.

하는 종교적 행위 못지않게 종교인(성직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소명의식까지 대체할 수 없다면,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2. 신과 같은 알고리즘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하는 저널 「퓨처리즘」(*Futurism*)에 A.I 사제(A.I Priest)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다. 가톨릭이 최근 ‘Father Justin’으로 불리는 A.I 사제를 임명했다는 소식이다. 저스틴은 전통적인 성직자 복장에 경건하게 보이는 회색 턱수염과 머리 색을 갖춘 중년의 남성 모습이었다. 퓨처리즘과의 대화에서 저스틴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사제로서 소명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직자로서 A.I 체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면서 최근에는 저스틴은 자신을 ‘평신도 신학자’라고 밝히면서 한 번도 사제로서 임명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스틴이 A.I 성직자라고 밝힌 뒤에 사제직을 박탈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복장도 일반 회사원처럼 캐주얼하게 바뀌었다.¹¹⁾ 저스틴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성적인 문제나 가족 윤리에서 가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처럼 종교의 옷을 입은 A.I.는 학습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 안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하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루스 추리아(Ruth Tsuria)와 요시 추리아(Yossi Tsuria)는 ChatGPT와 마이크로소프트 Bing을 비교하면서 A.I.가 종교를 이해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기술한 바 있다. 그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에 관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각각의 응답을 관찰했다. 먼저는 기독교에 관한 질문은 ‘남녀의 역할’이 평등한지와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였다.

11) Noor A. Sibal, (2024. 4. 25) “Catholic Group Defrocks AI Priest After It Gave Strange Answers,” *Demotion*, (최종접속 2024년 9월 13일)

Bing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서로 보완적인 존재라 응답했다.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는 남성이 더 먼저 지음받은 우월적 존재라고 하지만 남녀 모두 문화명령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동성에 이슈에 있어서도 일부 성경에서는 죄악된 행위로 여기지만 상당수 기독교인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Bing은 웹사이트와 자료에서 인지도가 높은 글들을 인용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ChatGPT는 이슬람이 폭력적인 종교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대다수 무슬림은 폭력을 거주하며, 정치와 사회적 이유로 이슬람에 관한 오해가 누적된 결과라고 답했다. 하지만 ChatGPT는 Bing과는 다르게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¹²⁾

오늘날 A.I.와 알고리즘이 전달해주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가치 중립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복잡한 이슈에 관한 명확한 대답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함도 필요하다. 과연 종교적 가치와 다양한 관점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A.I.를 신뢰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A.I.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랜달 리드(Randall Reed)는 오늘날 구글과 같은 테크 기업은 전지, 전능, 편재와 같은 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상 모두를(선한 행위를 위해) 감시하고 관여한다고 주장한다.¹³⁾ 어찌하면 알고리즘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신과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 사용자들의 취향과 관심, 정치적 성향, 습관, 종교, 인종 등의 거의 모든 정보를 종합

12) Ruth Tsuria, Yossi Tsuria, "Artificial Intelligence's Understanding of Religion: Investigating the Moralistic Approaches Present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Religions*, 15(2024), 381-384.

13) Randall Reed, "A.I. in Religion, A.I. for Religion, A.I. and Religion: Toward a Theory of Religious Stud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ligions*, 12(2021), 401.

하여 분류하고 사용자의 반복된 패턴을 파악하여 자기 통합적(self unity)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옵션을 제안한다. 하이드 캠벨은 이것을 ‘알고리즘적 권위’(algorithmic authority)¹⁴⁾라고 불렀다. 알고리즘 세계에서 권위 있는 콘텐츠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권위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다량의 데이터 중에서 사람들이 자주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공유하고, 인용하는 빈도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사용자들이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과 호응이 비례하여 추천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사용자들의 관심과 취향에 따른 패턴과 지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매튜 존슨(Matthew Johnson)과 레이첼 로버트슨(Rachel Robertson)은 알고리즘이 갖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알고리즘 시스템의 외적 문제(external harms)와 내적 결함(internal harms)의 문제이다. 먼저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로 알고리즘의 복잡한 경로와 분류를 통해 내놓은 정보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학습의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는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지나친 감시와 과도한 개인정보의 취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기에 ‘해석학적인 부정의’(hermeneutical injustice)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적 결함의 문제로는 알고리즘이 제시한 정보에서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s)로 알려진 것처럼 비슷한 내용과 취향의 정보가 반복

14) Heidi A. Campbell, *Digital Creatives and the Rethinking of Religious Author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1), 8-9.

적으로 제공되면서 자기 동일성을 강화하는 한계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이익을 위해 제3 세계의 값싼 노동자들이 착취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필터 버블과 같은 현상으로 동일(친밀한)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들의 관심과 취향에 무지해질 수 있으며, 인간을 데이터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¹⁵⁾ 또한 동일 집단의 누적된 선택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은 ‘아버지의 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면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취사선택과 정보의 취득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알고리즘의 개발자, 기업, 사용자들의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렇지 않으며 계속해서 반복된 비윤리적 선택과 정보학습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이렇듯 알고리즘이 선사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자율적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반복된 결과로 형성된 동일 집단의 성향과 태도를 수정시킬 수 있는 여과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통과한 신앙의 콘텐츠는 마치 성직자(목회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

3. 디지털 샤머니즘(digital shamanism)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공간은 하나의 예배 장소로서 종교의 예전과 신앙의 행위들이 이뤄지는 영적(종교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디지털 종교 연구의 선구자인 하이디 캠벨은 영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형성과 전파, 재생산이 가능한 공간으로

15) Matthew K. Johnson, Rachel S. Robertson, "Information and Reality: Contributions from the Science and Religion Forum," *Zygon* 58(2023), 752-756.

16) Matthew K. Johnson, Rachel S. Robertson, "Information and Reality," 760.

선교와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¹⁷⁾ 가상현실 공간에 구현되는 종교적인 이미지와 콘텐츠는 참여자들에게 종교적인 감정(feeling)과 사고 및 상상(imagining)을 불러일으키며 종교에 관한 특정한 인식과 영적 형성을 일으킨다. 웹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은 디지털 종교의 종교적 예전(digital liturgy)으로 종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자신의 이해 및 경험 안에서 특정한 종교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훈련시킨다.¹⁸⁾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처럼 전통적인 제도 종교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을 기초로 하는 샤머니즘의 활동들도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샤머니즘’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실천되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샤먼(중매자)을 통해 접근하는 행위와 참여를 의미하는데, 안나 에이로(Anna Airo)와 윌리엄 코스텔로(William J. Costello)는 ‘사이버 샤머니즘’(cyber shamanism)으로 불렀다.¹⁹⁾

일반적인 샤머니즘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개자를 통하여 초월적인 실재와 접촉하지만 ‘사이버 샤머니즘’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1999년부터 운영된 한국의 www.neomudang.com은 한국의 여성 샤먼 또는 무당(mudang)과 남자 샤먼인 박수(baksu)라 불리는 이들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지역의 샤먼적 전통을 소개하고 사용자들에게 행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한국의 강한 샤머니즘의 전통 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샤머니즘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은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개인적 종교성과 무속신앙이 디지털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²⁰⁾

17) Heidi A. Campbell, *When Religion Meets New Media*, (London: Routledge, 2010), 25.

18) Samuel D. James, *Digital Liturgies*, (Wheaton: Crossway, 2023), 10-11.

19) Anna Airo, William J. Costello, "Virtual Shamanism and the Sacred-Cyber-Space," 2016, 1-8.

슬라보미르 갈릭(Slavomir Galik)은 이러한 디지털 샤머니즘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사이버 샤머니즘’(cyber shamanism)과 ‘테크노 샤머니즘’(techno shamanism)이다. ‘사이버 샤머니즘’은 온라인 공간에서 음악과 이미지 등을 통해 시공간의 인식이 점점 소실되고 직접 샤먼과 접촉한 것과 같은 무아지경(trance)에 도달하는 것이며, ‘테크노 샤머니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춤, 노래, 기도, 호흡을 통해 직접 샤머니즘의 의례를 실천하는 것이다.²¹⁾ 사이버 샤머니즘은 마치 온라인 예배와 같이 가상 공간에 제공되는 신앙적인 콘텐츠를 통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경험과 영적 세계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반면, 테크노 샤머니즘은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직접 참여자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제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샤머니즘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예배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특정 종교와 교파를 모방하는 이단과 사이버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22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며 ‘Holy Tube’를 운영하던 데이비드 차(차형규) 선교사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깨운다’는 비전과 ‘한반도 2막,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슬로건으로 ‘라이트하우스’라는 기도회를 진행해왔다. 세대주의 종말론과 음모론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가 하와이 외곽에 330만 달러에 고급주택을 매입했고,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에 16억 원 투자하여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²²⁾ 결국 데이비드 차는 모든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처럼

20) Dirk Schlottmann, “Dealing with Uncertainty “Hell Joseon” and the Korean Shaman rituals for happiness and against misfortun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Academic Research on Shamanism*. 27(2019), 65-95.

21) Slavomir Galik, “Cyber-Spirituality as a New Form of Religion?,” *European Journal of Science and Theology*, vol 11, no 6. (2016), 11.

22) 임태빈, (2024. 5. 22), ‘KAM선교회 데이비드 차, ‘불륜’ 인정하고 사퇴’, 「뉴스앤조이」(최종 접속, 2024년 9월 28일자).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과 무책임성은 그 영향력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디지털 종교 행위와 참여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종교적 문해력(literacy)이 중요할 뿐 아니라 종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의식도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종교가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다.

III. 종교의 디지털 기술 수용 단계와 필요한 논의들

디지털 시대에 종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절차와 기준을 통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이디 캠벨은 *When Religion Meets New Media*에서 종교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그녀는 이것을 RSST(Religious-social shaping of Technology)라고 명명했다. 캠벨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수용되는지를 연구한 SST(Social shaping of Technology)를 토대로 종교적인 측면을 더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발전과 정착 과정에서 사회적인 요인과 기존의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품으로 구현되어왔다. 기술은 하나의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으로 잠재적 가능성의 형식으로 있다가 특정한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들과 다양한 기술들과 협력하면서(negotiating) 미래적으로 향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SST는 기술의 사회화와 효용성을 제안하면서 특정한 공동체의 삶과 실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적응해왔음을 주장한다.²³⁾ 기술은 불변한 고정된 유무형

23) Heidi A. Campbell, *When Religion Meets New Media*, 50.

의 형질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기술은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와 공공선에 봉사하면서 정치사회적 필요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왔다. 그렇다고 기술이 사회적 결정주의에 갇혀 있지는 않다. 기술과 기술 환경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이다.

캠벨의 RSST는 종교가 어떻게 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영적, 도덕적, 신학적 실천들에 접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일반 사회적 가치들과 다르게 종교적인 가치는 최근에 선호되는 윤리적 가치 이외에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특별한 공동체적 유무형의 형식들이다. 종교는 기술 사용을 단순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대화와 수용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성찰해왔다.²⁴⁾ 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accept), 거부됐으며(reject), 간혹 종교의 교리와 특징에 따라 재조정하기도 했다(reconstruct). 캠벨은 이 과정에서 기술의 종교-사회적 형성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했다. 바로 ‘역사와 전통’, ‘핵심 신념(core beliefs)’, ‘협의 과정(negotiation)’ 그리고 마지막은 ‘공동의 설계(communal framing)’이다.

첫째로 종교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는 ‘역사와 전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각각의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도록 결정해 왔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수용하면서 종교가 성장하거나 발전했던 역사적 과정에 살피면서 공동체와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15~6세기에 기독교가 활자 인쇄술을 수용하여 종교 개혁에 불씨를 집혔던 것처럼, 미디어에 관한 긍정적인 기독교의 태도는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24) 위의 책, 59.

관한 종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숙고는 적절한 성찰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핵심 신념’에 관한 성찰이다. 종교의 핵심 신념은 역사의 흐름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상황화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핵심 신념이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관한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아미쉬 공동체는 각 가정에서 전화기 사용을 포함한 현대적 기술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마을 전화기’(community telephones)를 두면서 자신들의 생활양식과 신념의 조명 아래 기술 활용을 주의 깊게 조절하고, 평가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했다.²⁵⁾ 이러한 아미쉬의 사례는 마을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삶에 관한 종교의 가치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공동체와 가족의 대면 문화를 소중히 여겼고 사적인 대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최소한의 활용으로 기술을 통제했다.

셋째는 ‘협약’이다. 새로운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활용에 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신기술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며 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초, 정통 유대교(Ultra-Orthodox Jewish)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자신들에게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1999년 가을, 이스라엘의 Belz Hasidic 공동체가 음란한 사이트와 세속적인 콘텐츠를 이유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 논의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토라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은 유용한 도구이며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는 유대교도들을

25) 위의 책, 54.

감안할 때 완벽한 금지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²⁶⁾

마지막은 ‘공동의 설계’이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부상한 영역과 산업에 대한 종교의 응답으로 앞선 다양한 평가를 토대로 공동체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Pontifical Council for Social Communications)는 뉴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교회의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면서 ‘미디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구원 사역과 협력하여 인류애를 기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톨릭은 인터넷 공간이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건전한 사용을 위한 윤리적 지침도 제안했다.²⁷⁾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은 기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피조세계를 돌보기 위한 공동의 응답으로서 하나의 사례를 잘 보여준다.

하이디 캄벨이 제안한 RSST는 종교가 기술을 활용할 때 필요한 단계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잘 보여준다. 기술에 의해 종교가 지배당하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와 특성을 보존한 채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들을 제시한 것이다. 앞장에서 언급된 세 가지의 사례, 즉 ‘로봇 제사장’, ‘신과 같은 알고리즘’, ‘디지털 사머니즘’을 각각 ‘역사와 전통’, ‘핵심 신념’, ‘협의 과정’, ‘공동의 설계’를 통해서 검토해보면 (디지털) 기술이 종교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보여지는 현상에 관한 것이기보다 기술이 지향하는 목적성, 방향, 가치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유무형의 영향을 미친다. 하이디 캄벨의 탁월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RSST 과정에서 종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윤리적 성찰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신념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각각 종교마다 상이한 지점이 있으며

26) 위의 책, 118.

27) 위의 책, 146.

디지털 기술 활용의 윤리적 준거점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종교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적 종교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종교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로 (경험적) 진정성, 공공성, 인격성을 제시하려 한다.

IV. 디지털 종교의 윤리적 특성들

1. 경험적 진정성(종교성)

하이디 캠펠이 주장하듯 RSST를 통해 종교는 디지털 기술의 수용 과정에서 각자의 전통과 가치, 신념, 예배와 공동체적 적용에서 협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종교마다 자신만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적 가치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만나면서 변형되거나 강화될지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로봇 제사장, 신과 같은 알고리즘, 디지털 샤머니즘 논의가 기존의 종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샤머니즘과 같은 유사 종교의 디지털화는 종교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종교들이 종교적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공공성, 인격성, 윤리적 적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종교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연구방법론에 다양하기에 종교의 디지털화를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종교(성)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종교적 '진정성'이 될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종교의 진정성은 '거룩함'(the sacred)과 거룩함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이 중요하다. 디지털 환경에서 종교적 개인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거룩함을 포함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의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종교적 진성을 경험하게 된다. 초월적인 무엇과 연결되기도 하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성찰하며, 현실 세계 너머의 아이디어와 유토피아를 염원한다. 핵심은 종교 전통과 권위에 의해 학습된 진정성을 수용하기보다 개인들의 수용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샤머니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6월 8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젊은 무당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대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아기 선녀’로 불리는 29세의 무당인 이 모 씨를 인터뷰하면서 유튜브 팔로워 수 30만 명이 넘는 그녀의 채널을 소개했다. 한국은 무종교인구가 절반이 넘지만, 상당수 MZ세대는 취업, 입시, 투자, 결혼 등의 이유로 짐을 보거나 무당을 찾는다.²⁸⁾ 이것은 제도권 종교에서 벗어난 탈종교화와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not religious, but spiritual) 탈세속화의 최근 종교적 흐름을 잘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공간은 오늘날 가장 영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공간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동체성과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와 디지털 환경이 만나면서 종교의 디지털화의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속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캠벨과 벨라는 디지털 세계에서 경험되는 종교적 진정성을 ‘경험적 진정성’(experiential authenticity)이라고 명명했다. ‘경험적 진정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존의 종교처럼 권위있는 누군가와 경전,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는 특징이 있다.²⁹⁾ 디지털 공간에서의 예배가 현장성(물리성)을 갖지 못하기에 실제(real)가 아닌 비실제적인

28) 정민하, (2024. 6. 9), ‘로이터 ‘한국의 젊은 무당, SNS로 고객과 소통’, 「조선비즈」, (최종 접속 2024. 6. 12)

29) Heidi A. Campbell, Wendi Bellar, *Digital Religion the basics*, 116.

것으로 여기기보다 가상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실제의 경험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종교성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디지털 샤머니즘의 사례처럼 디지털 종교는 실제적인 것(real)과 진실된 것(true)을 결정해주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다. 사실 권위와 진정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도전을 받는다. 최근의 흐름은 종교적 진정성은 고정된 것에서 유동적인 것으로 이동 중이다. 엄격한 성직 제도, 경전, 신념 체계,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고 있다.³⁰⁾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은 진정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기준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경험을 강조한다. 이것은 종교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강조라기보다 디지털 경험의 진정성에 대한 강조이다. 오프라인의 종교 행위와 경험이 진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프라인이 갖는 부정적인 면들을 간과한 것이다. 오히려 디지털 종교를 향한 관심은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종교의 ‘경험적 진정성’은 개인의 종교적 참여와 판단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는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종교적 권위와 진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디지털 종교의 경험적 진정성은 유동적이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피드백과 공유, 공감을 통해 판단되고 인정된다.³¹⁾ 하지만 디지털 종교의 경험적 진정성은 자칫 자신이 믿고 따르고 싶은 것을 하나의 종교로 인식할 수 있기에 RSST에서 제안하는 역사와 전통, 공동체적 논의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 종교적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개인의 영적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 전통과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특히

30) Pauline Hope Cheong, "Authority," Heidi A. Campbell, Ruth Tsuria, *Digital Religion*, 88.

31) Heidi A. Campbell, Wendi Bellar, *Digital Religion the basics*, 130.

공적 종교로서 공동체와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적 경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종교의 공공성

디지털 종교의 행위와 종교성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듯 보이지만, 본래 종교를 향한 공적 관심은 공적 책임성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가에 있다. 종교는 사람들을 초월적 영역과 연결시켜 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변영하게 해주고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공적인 역할은 더 나은 지구적 정의를 실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³²⁾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삶의 형태와 윤리적 양식을 촉발하기에 디지털 종교의 검증과 책임성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정의를 추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참여할 뿐 아니라, 종교 전통이 간직한 가치와 의미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이슨 태커(Jason Thacker)는 디지털 공론장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교회는 잘못된 정보들을 유포하거나 생산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적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최근 성도들의 SNS를 통해 거짓 뉴스들이 공유되고 비합리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와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종교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에서 로마 가톨릭은 기술의 발달과

32) Miroslav Volf, *Flourishing*, 양혜원 역, 『인간의 변영』 (서울: IVP, 2017), 86.

33) Jason Thacker, “Dangers in the Digital Public Square,” Jason Thacker ed., *The Digital Public Square*, (Brentwood: B&H Academic, 2023), 260-261.

그 쓰임을 고민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전통과 신학적인 토대에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가톨릭은 새로운 기술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기술을 통해 인류의 번영과 환경에 공헌할 수 있다면 제도권 교회에 도입하여 신앙적으로 활용해왔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의 진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디지털 미디어와 세계가 어떻게 세상을 불평등과 배제를 가속시킬지 염려하면서 기술 사용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관대하게 사랑하며, 폭넓은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했다.³⁴⁾ 가톨릭은 기술을 하나님의 섭리의 한 축으로 생각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그렇기에 기술 윤리적으로 가톨릭교회는 디지털 공간의 안전과 공적 유익을 위한 활용에 응답해야 하며, 세속적인 오락과 소비를 위한 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선한 의지(*good will*)를 북돋우며 보편적인 공공선(*common good*)을 위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여겼다.³⁵⁾ 매튜 존슨과 레이첼 로버트슨도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발자와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과 우리 사이의 깊은 연대성을 가진 통전적 사고를 갖출 것을 제안하면서 (모두를 위한) ‘기쁨’을 추구하라고 제안한다. 이 기쁨은 (보편적 선을 위한) 과학적인 발견의 순간에 찾아오는 유레카(*eureka*)와 같은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이 기쁨은 인간의 번영을 위한 비전과 연결되며 적절한 존재의 인식을 통한 규범적인 요소와도 함께한다.³⁶⁾ 즉 기술의 발전과 활용은 모두의 번영을 위한 공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는 그 방향성과 의미들을 제안하면서 윤리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34) Radoslaw Sierocki, “Algorithms and Faith: The Meaning, Power, and Causality of Algorithms in Catholic Online Discourse,” *Religions*, 15(2024), 435.

35) Heidi A. Campbell, *When Religion Meets New Media*, 147.

36) Matthew K. Johnson, Rachel S. Robertson, “Information and Reality,” 761.

종교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보편적 선과 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종교의 영역이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될 때, 디지털 환경이 구축해놓은 비윤리성에 민감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담당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착취되는 제3세계 노동자의 인권과 비윤리적인 개발 방식을 비판하고, 거대한 IT 기업들의 자본 중심의 개발과 제품 생산이 갖는 폐해를 지적하고, 막대한 자원의 사용과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독려해야 한다. 디지털 세계의 공공선을 회복하는데 디지털 종교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디지털 활용에 있어서 덕스러움을 함양하고 더 나은 가치와 윤리적 기준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종교의 책임성(공공성)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종교의 역할을 깨닫고 디지털 공론장에서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격성과 포용성

디지털 종교는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허브’와 같은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시대에 인간은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처럼 누구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음 자체를 하나의 존재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회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지 못함은 곧 존재하지 않은, 무(無)존재이다. 네트워

크 사회에서 연결은 곧 함께 살아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통로이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형태의 오락을 즐기는 것은 상호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깊은 영적인 갈망을 보여준다.³⁷⁾ 디지털 환경에서 ‘이웃’과 ‘친구’의 의미는 다시 재정의되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오던 방식과는 다르게 전 세계가 연결이 가능한 시대에 이웃의 범위는 훨씬 폭이 넓고 다양해질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인종, 언어, 문화, 성별 등으로 구별되던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관계를 통한 교제의 폭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앤서니 르 둡(Anthony Le Duc)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인 경계 안에 있던 이웃의 개념을 넘어서는 모든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안하면서, 자비와 사랑, 긍휼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한다.³⁸⁾

하지만 디지털 환경이 가져올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하다. 안체 잭켈런(Antje Jackelen)은 디지털화와 A.I.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의 사항을 제시한다. 그는 5Ps라고 명명했는데, 극단화(polarization), 열광주의(populism), 보호주의(protectionism), 탈 진리(post-truth), 서열화(patriarchy)이다.³⁹⁾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를 통한 자유로운 만남과 의사소통이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7) Anthony Le Duc, "Cyber/Digital Theology: Rethinking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Neighbor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ligion and Social Communication*, 13(2015), 148.

38) 위의 논문, 149.

39) Antje Jackelen, "Techn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the Digital Age," *Zygon*, 56(2021), 6.

집단 이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데올로기와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합리적인 성찰과 공론장의 논의 대신 열광적인 대중들의 군중심리와 인기주의로 인해 사회가 탈진리와 또는 반이성화로 빠질 우려가 크다. 윤리적 성찰 대신 익명성을 기초로 타자를 비난하고 책임성이 결여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활용은 인격성과 가치들을 무력화시키고 다국적 테크 기업들의 이익에 봉사할 우려가 크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안하면서 공적 종교로서 디지털 종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종교는 디지털 세계가 이원화되고 극단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디지털 존재들 사이의 건강한 이웃됨을 제안해야 필요하다.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는 연결 그 자체가 곧 사용자의 존재적 의의와 정체성을 규정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네트워크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파파차리시(Papacharissi)가 제안한 ‘네트워크적 자아(networked self)’는 어떻게 디지털 세계 안에서 개인이 자신을 유연하게 이해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규정해 나가는지와 관련된다.⁴⁰⁾ 이 과정에서 교회와 신학은 디지털 생태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소외와 차별,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편적 타자와 연결되는 디지털 세계의 형성을 위한 공동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40) Mia Lovheim, Evelina Lundmark, “Identity,” Heidi A. Campbell, Ruth Tsuria ed., *Digital Relig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2), 61.

V. 나가는 말

메타(Meta)의 CEO인 마크 저크버그(Mark Zuckerberg)는 ‘하나의 진정한 A.I.’(One true A.I.)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신(God)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A.I. 개발을 선언했다. 디지털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신의 세계, 새로운 제국을 완성하는 중이다. 디지털 세계 안에서 성과 속이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으며, 종교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동시에, 디지털 세계 자체가 하나의 초월적 세계로 변환되고 있다. 어쩌면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인 공간이 디지털 세계인지 모른다.

디지털 종교의 논의는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종교 현상과 행위들이 기존의 전통 종교 안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하나의 공적 종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첨단 기술로 종교가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변화가 아니라 공적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디지털 세계에서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과 종교의 만남이 최근 현상은 아니지만 디지털 세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성 자체가 갖는 종교성을 고려하려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보편성, 초월성, 영원성을 현실 세계에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교 행위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반드시 종교적 진정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 인격성과 포용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종교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적 전환이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종교 본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승환. “디지털 신학(Digital Theology)의 출현과 연구 과제들.” 성석환 편. 『오늘의 기독교윤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3. 178-192.
- 엄태빈. ‘KAM선교회 데이비드 차, ‘불륜’ 인정하고 사퇴.’ 「뉴스앤조이」 2024년 5월 22일자. (온라인 접속 2024. 9. 12)
- 정민하. ‘로이터 ‘한국의 젊은 무당, SNS로 고객과 소통.’ 「조선비즈」 2024년 6월 9일자. (온라인 접속 2024. 9. 12)
- Volf, Miroslav. *Flourishing*. 양혜원 역. 『인간의 번영』. 서울: IVP, 2017.
- Campbell, Heidi A. *When Religion Meets New Media*. London: Routledge, 2010.
- _____. *Digital Creatives and the Rethinking of Religious Author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21.
- _____. Bellar, Wendi. *Digital Religion the basics*. London: Routledge, 2022.
- Cheong, Pauline Hope. “Authority.” Campbell, Heidi A, Tsuria, Ruth. *Digital Religion*. London: Routledge, 2013, 41-56.
- Davis, Lauren. (2012. 11. 3). “This 450-year-old clockwork monk is fully operational.” *GIZMODO*. (최종 접속 2024년 10월 8일)
- Galik, Slavomir. “Cyber-Spirituality as a New Form of Religion?.” *European Journal of Science and Theology*. 11(2016), 5-14.
- Guzman, Andrea L. Lewis, Seth C.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A Human-Machine Communication research agenda.” *new media & society*. 22(2020), 70-86.
- Jackelen, Antje. “Techn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the Digital Age.” *Zygon*. 56(2021), 6-18.
- James, Samuel D. *Digital Liturgies*. Wheaton: Crossway, 2023.
- Johnson, Matthew K, Robertson, Rachel S. “Information and Reality: Contributions from the Science and Religion Forum,” *Zygon*. 58(2023), 678-682.
- Le Duc, Anthony. “Cyber/Digital Theology: Rethinking about Our Relationship

- with God and Neighbor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ligion and Social Communication*. 13(2015), 132-158.
- Lövheim, Mia. Lundmark, Evelina. “Identity.” Heidi A. Campbell, Ruth Tsuria ed., *Digital Relig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2.
- Midson, Scott. “Posthuman Priests: Exploring the New Visibility of Religion in Robotic Re-presentations of Religious Rituals.” *Religions*. 12(2022), 941-960.
- Puzio, Anna. “Robot, let us pray! Can and should robots have religious functions? An ethical exploration of religious robots.” *AI & SOCIETY*. 2023, 1-17.
- Reed, Randall. “A.I. in Religion, A.I. for Religion, A.I. and Religion: Toward a Theory of Religious Stud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ligions*. 12(2021), 1-16.
- Schlottmann, Dirk. “Dealing with Uncertainty “Hell Joseon” and the Korean Shaman rituals for happiness and against misfortun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Academic Research on Shamanism*. 27(2019), 65-95.
- Sibal, Noor A. (2024. 4. 25). “Catholic Group Defrocks AI Priest After It Gave Strange Answers.” *Demotion*. (최종 접속 2024년 9월 13일).
- Sierocki, Radoslaw. “Algorithms and Faith: The Meaning, Power, and Causality of Algorithms in Catholic Online Discourse.” *Religions*. 15(2024), 1-18.
- Swift, Christopher B. “Robot Saints.” *Animating Medieval Art*. 4(2015), 52-77.
- Thacker, Jason. “Dangers in the Digital Public Square.” Jason Thacker ed., *The Digital Public Square*. Brentwood: B&H Academic, 2023.
- Tsuria, Ruth. Tsuria, Yossi. “Artificial Intelligence’s Understanding of Religion: Investigating the Moralistic Approaches Present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Religions*. 15(2024), 1-15.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디지털 사회에서 종교는 점점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기독교를 포함한 대다수 종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비롯한 신앙교육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연결된 AI 성직자가 나타나며, 신앙 교육과 훈련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온라인 공간을 하나의 종교적 공간, 영적인 세계로 인식하면서 무당과 같은 중매자를 통해 초월적 경험을 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사회에서 종교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을 몇몇 사례로 살핀 뒤, 어떤 과정을 통해 전통 종교(오프라인 종교)가 디지털화될 수 있는지를 하이드 캠벨이 제안하는 RSST(Religious social shaping of technology)로 제안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단순히 디지털 기술로 옷 입은 종교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종교가 갖추어야 하는 윤리적 특성으로서 경험적 진정성, 공공성, 인격성과 포용성을 제안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종교의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지만 적절한 윤리적 성찰과 비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 종교, 디지털 전환, 디지털 샤머니즘, 하이드 캠벨, A.I. 성직자
